

#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의 전략과 의미

- 『돌베개』와 『나의 고백』을 중심으로

김경미\*

## || 차 례 ||

- I. 서론
- II. 『돌베개』의 서술 방식과 의미
  - 1. 관조적 서사와 성찰의 세계
  - 2. 사랑의 세계와 민족의 복원
- III. 『나의 고백』의 서사 전략과 의미
  - 1. 기억의 배치와 ‘고백’의 전략
  - 2. 계몽적 글쓰기로의 전환과 정치성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나타난 ‘관조’와 ‘고백’의 서사, 그리고 ‘계몽’의 서사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당시의 이광수의 문단적 위치와 내적 욕망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전적 글쓰기인 『돌베개』와 『나의 고백』에서 서사 전략의 변화 과정은 당대 문단의 정치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졌다.

『돌베개』는 관조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서사 전략을 구사하다가 1948년을 기점으로 계몽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폐력하는 서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관조의 시선은 ‘나’의 내면을 향해 있어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계몽의 서사 전략을 보이는 세편의 글은 1948년 문단의 정치적 담론이 ‘반공’으로 전환될 때 쓴 작품으로 ‘사랑’의 논리를 펼치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성을 드러낸다. 이 사랑의 세계는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정치성을 담보로 하는 ‘민족’의 복원으로 드러난다.

『나의 고백』은 단정 수립과 동시에 집필한 자전적 글쓰기이다. ‘고백’의 전략으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시절의 기억을 집중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친일 행위에 대한 자기 구원을 시도한 글이다. 그러나 『나의 고백』 말미에 <친일파의 변>이라는 ‘설득’의 글이 첨부되면서, 이 글의 내용된 의도가 ‘고백’을 통한 자기 정체성 구축이 아니라 계몽의 서사로 대중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고, 당대 문단에서 자신의 정치성을 회복하고자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고백의 전략과 기억의 의도된 배치로 자신의 현재의 욕망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해방기 문단에서 정치성을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광수의 해방기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인 『돌베개』와 『나의 고백』은 관조와 고백의 서사에서 계몽의 서사로 변환되는 과정이 문단의 정치 담론과 맞물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광수가 종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문단의 위치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글을 썼던 시절의 ‘계몽’적 글쓰기에 있었고, 이전의 다양한 관조와 고백의 서사 전략은 그것의 준비 과정일 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이광수, 자전적 글쓰기, 서사 전략, 관조, 고백, 기억, 계몽, <돌베개>, <나의 고백>

## I . 서론

이 논문은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나타난 ‘관조’와 ‘고백’ 서사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이광수의 문단적 위치의 확립 과정과 그의 내적 욕망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자전적 글쓰기’인 「돌베개」와 「나의 고백」이 관조의 서사에서 고백적 서사로 전환되면서 이광수는 해방기 문단에 대한 자신의 내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변화무쌍하게 변모하던 당시의 정치적, 문단적 상황과도 맞물리면서 서사 전략에서도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은 조선인들에게 갑격과 동시에 놀라움을 동반한 갑자기 찾아온 손님과도 같았다.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은 일본 제국의 폐망과 조선의 자유

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억압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해방 전 일제의 신체제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전파했던 이광수의 입장에서 해방은 기쁨보다는 혼란과 충격이 더 앞섰을 것이다. 상황적 논리에서 볼 때 해방기의 문학은 참회의 문학과 변명의 문학 그리고 해방을 찬양하는 문학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이광수의 문학은 이러한 문학적 성향과 달리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고 문단의 역학관계에 따라 서사 전략이 달라졌다. 그는 이 시기에 고백적 수필들과 민족 재건을 꿈꾸는 소설을 주로 창작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볼 해방기의 자전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수필 『돌베개』와 『나의 고백』이다. 물론 『나』라는 소설 작품이 있다. 그러나 『나』는 소년시절과 스무살 고개로 나누어 짧은 시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소설 장르의 특성상 ‘허구’가 많이 첨가되어서 해방기의 이광수의 내면 풍경을 탐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수필인 『돌베개』와 『나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방기의 그의 내적 욕망 구조와 문단적 상황에 따른 정치적 입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광수를 해석하는 기준은 주로 계몽담론이나 거대 담론인 민족담론 위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자전적 글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장르의 혼합으로 인해 자전적 글쓰기의 경계를 정하기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평가가 다채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중에 주목해서 살펴볼 논의들이 있다. 김윤식은 『돌베개』의 사상은 “식민지 사관을 자신도 모르게 대변”한 글로, “소박하고 도덕적”이며, “심정적 세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의 고백』에 대해서는 “변명과 참회의 틈바구니에 끼인”상태의 글로 이런 글을 쓴다는 그 자체로 ‘윤리’적이며 ‘자기 해방’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sup> 이 연구는 이광수의 삶과 시대적 정치 담론과의 관계에서 그의 문학을 살펴봄으로써 이광수의 해방기 문학

이 그의 전체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찰하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강현국은 「기억의 연금술」에서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는 인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향과 탈주의 행보를 통해 인정 욕구도 실현하고 기억의 사실성에 대한 심문도 회피하는 이 중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2)</sup> 노상래는 「이광수의 자서전적 글쓰기에 대한 일고찰」에서 이광수의 식민지 후반기의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그의 문학의 변모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성조기」와 「그의 자서전」을 대상으로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글쓰기와 ‘자신’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일상사의 문학과 미적 문학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3)</sup> 이 연구는 그의 문학사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해방 전의 자전적 글쓰기가 해방 후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해석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준 논의를 참고하면서 이 글에서는 이광수 해방기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에서 ‘관조’와 ‘고백’의 서사 전략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와 기억의 배치를 통해 드러나는 정치성과 서사 전략의 상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전적 글쓰기’는 가치를 추구하는 의지와 결부되어 있다.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정한 에피소드들을 선택하여 배열함으로써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고백’의 전략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sup>4)</sup> 한편 기억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자전적

1)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 403~454쪽.

2) 강현국, 「기억의 연금술」, 『한국학연구』 제33집, 고려대 한국학 연구소, 2010. 6, 20 9~233쪽.

3) 노상래, 「이광수의 자서전적 글쓰기에 대한 일고찰」, 『동아인문학』 제16집, 동아인문학회, 2009. 12, 119~151쪽.

4) 유호식, 「자기애에 대한 글쓰기 연구(1)-고백의 전략」, 『불어불문학연구』 제43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0, 184쪽.

글쓰기의 고백은 억압과 망각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원래 ‘기억’은 한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현재와 관련짓는 정신적 행위이자 과정이기 때문이다.<sup>5)</sup>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는 대부분 ‘기억’의 배치 구조에 따라 구성된 ‘고백’의 서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개념을 토대로 고백과 관조의 서사 전략의 의미를 먼저 살펴본 후 그의 자전적 글쓰기인 『돌베개』와 『나의 고백』에서 도출되는 이광수의 내재적 욕망 구조를 고찰할 것이다. 이것은 당대의 문단의 정치적 상황과의 상관관계에서 드러나는 그의 현재적 욕망과 정치성을 읽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 II. 『돌베개』의 서술 방식과 의미

이광수 전집 8권의 『돌베개』 항목에 실린 「죽은새」, 「돌베개」, 「백로」, 「나는 바쁘다」, 「우리 소」, 「풀」, 「제비집」, 「여름의 유모어」, 「살아갈 만한 세상」, 「인생과 자연」, 「인토」, 「서울 열흘」은 수필형식으로 쓴 것으로 1946년 10월부터 1947년 7월까지의 글들이고, 논문형식으로 쓴 「사랑의 길」, 「인생의 기쁨」, 「내 나라」는 1948년 3월에 쓴 글로 이후 단행본 『돌베개』를 출간하면서 함께 묶은 글들이다. 『돌베개』에 실린 수필류와 논문류의 글은 같은 책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 내용, 서사 전략에서도 많은 차이가 드러난다. 수필 형식으로 쓴 글들은 관조의 방식으로 삶과 나를 돌아보는 자전적 글쓰기임에 비해 논문 형식으로 쓴 글은 문단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계몽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돌베개』에 실린 두 종류의 글들은 문단의 재편성 시기를 거치기 전의 글과 후의 글에서 서사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그 전략에 따라

---

5)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의미도 달라진다. 그것이 어떤 의미와 논리를 합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 1. 관조적 서사와 성찰의 세계

해방 직후의 조선 문단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다. 우후죽순으로 생성된 문학 단체와 조직 결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갈등과 충돌이 넘치는 장이었다. 해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펼쳐진 국면에서 정치성을 떤 많은 단체가 난립하게 된다. 이 시기는 해방 직후 분출된 다양한 정치적 열망들이 좌우익의 대립구도에 따라 배치, 재배치되는 과정 속에 놓여있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에서 단정 수립 이전까지는 좌익문인들의 입지가 확고한 편이었다. 물론 우익계열의 문인단체들도 좌익에 대립적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직후의 문단적 상황은 좌우익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좌우익 문인단체에 동시에 이름을 건 작가들이 있을 정도로 통합에 대한 견해가 풍부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되는 시기가 바로 단정수립 이후인데, 이 시기에는 좌익 활동을 한 문인들은 북으로 대거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단정수립 이전시기에는 좌우익의 대립보다는 ‘친일’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거론하였다.<sup>6)</sup> 이러한 이유로 식민지기에 신체 제론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문인들은 해방 직후에 문단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었다. 이광수 역시 이러한 문인들 중에 하나이자 대표적인 작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인 해방 직후에 이광수는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서울이 아닌 사릉과 봉선사에 침거하

6) 해방기 문단과 정치적 상황에 관련된 논의는 강경화, 「해방기 우익 문단의 형성과정과 정치체제 관련성」, 『한국언어문화』 제2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6. 75~98쪽. 류경동, 「해방기 문단형성과 반공주의 작동 양상 연구」, 『상허학회』 제21집, 상허학회, 2007. 10, 11~35쪽.의 글을 참고하였다.

면서 자신과 삶을 돌아보는 관조적 형식의 글들을 집필한다. 우선 ‘관조’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객관적 실상만을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인 ‘관찰’과 감각의 경험적 반응을 말하는 ‘지각’과는 다르다. 사물에 대한 미적 판단은 그 대상과 인식주관의 심리적 교섭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미적 판단은 사물을 관찰하거나 지각하는 데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사물의 부분들을 하나의 시선으로 종합하고 해석하는 인식능력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조’이다.<sup>7)</sup> 이광수의 『돌베개』에 있는 글들은 관조의 시선으로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 중 「죽은 새」, 「나는 바쁘다」, 「여름의 유모어」는 당시의 그의 내면 풍경을 관조적 서사로 그려내고 있는 대표적인 글들이라 할 수 있다.

뿔이 있으니 뱉아도 보고 싶고, 몸이 있으니 자손도 보고 싶으련마는 이것 저것 다 마음대로 못하게 시리 코를 뛰운 그는 사바세계의 참는 도를 닦을 수밖에 없이 된 것이다. 조상적부터 따라오는 파리와 등에와 모기는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묵은 빛을 내라고 재촉하고 있다. 아무리 피를 뺄리고 가려움과 아픔을 받아도 그 몸을 벗어놓기 전에는 면할 수 없는 빛이다. 밤마다 내 베개에 오는 그의 한숨 소리의 뜻을 나는 안 것 같다.<sup>8)</sup>

안 걸어 본 길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다.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길가에 무슨 위험은 없나 하여서 버스럭 소리만 나도 쭈뼛하여 마음이 쓴다. 내 수양이 부족한 덫인가, 이 몸뚱이에 붙은 본능인가. 이 불안을 이기고 모르는 길을 끝끝내 걷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면 길 없던 곳에 첫걸음을 들어놓은 우리 조상님 네는 큰 용기를 가졌거나 큰 필요에 몰렸었을 것이라고 고개가 숙여진다. 성인이나 영웅은 다 첫길을 밟은 용기 있는 어른들이셨다. 세상에 어느 길치고 첫걸음 안 밟힌 길이 있던가.<sup>9)</sup>

7) 엄경희, 「근대성과 자연합일의 시」,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2, 117쪽.

8) 이광수, 「나는 바쁘다」, 『돌베개』, 『이광수 전집 8』, 삼중당, 1972, 280쪽.

위의 첫 번째 인용 글은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사람의 눈에 들어온 소의 모습이다. 그는 소를 통해 현실 세계의 힘들고 고달픔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 소를 멀리서 관조적 자세로 지켜보면서 느낀 삶의 비애가 인간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현재의 ‘나’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인용문은 처음 가보는 길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 글이 해방 직후인 46년에 쓴 글로 당시의 이광수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예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세상에 몸을 드러낼 수 없었던 나약한 한 인간이 버스럭 소리만으로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심경이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다. 위의 인용문은 둘 다 누군가를 향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벗어나고 있다. 즉 이광수 특유의 계몽조와 설교조를 벗어나 제3자가 아닌 자신을 향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관조’의 서사 방식이다.

관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물과 자연들은 화자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로 나아간다. 이것은 사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적절한 거리를 통한 사물에 대한 관조적 자세는 사물의 미감과 원리를 더욱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갖도록 한다. 이것은 바로 삶에 대한 겸손과 낯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시기 이광수는 문인으로서도 지도자로서도 세상을 향해 그 어떤 제스처도 취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옆에 있어주는 자연에 자신을 의탁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은 ‘나’와 ‘자연’의 합일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한다. 그것은 바로 운명론이자 속명론, 그리고 나와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설로 나아가게 된다.

---

9) 이광수, 「죽은 새», 『돌베개』, 위의 책, 274쪽.

소는 불평하다. 더욱이 여름에 그러하다. 일은 고되어 명에 터지고 등은 채찍에 부었다. 적이 한가하게 되어 개울가 풀밭에 누워 쉴만하면 물것이 덤빈다. 생물치고 물것이 없는 것이 없지만은 아마 물것 단련을 가장 많이 하는 이는 소일 것이다. 적어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중략-인용자) 그러나 쫓으면 오고 쫓으면 오는 등에와 파리의 폐를 이로 다 쫓으려면 소의 머리와 꼬리를 비행기의 플로펠라 모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내어 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운명으로 돌리고 꾹 참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눈에 수십 마리, 몸에 수백 마리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 파리가 붙어도, (그래 마음껏 뜯고 뺏아라)하고 한숨을 쉬며 새김질을 하고 있다.<sup>10)</sup>

나는 지팡이 끝으로 두어 치 깊이, 서너 치 길이 되는 구덩이를 파고 이 이름 모를 새의 시체를 묻어 주었다. 그리고는 돌아섰다. 내 마음에는 그 새의 생각이 가득 찼다. 나는 오던 길을 걸어서 한걸음 한걸음 내려왔다. 내가 어찌하여서 오늘 여기 올 생각이 났을까. 내가 묻어준 그 새와 나와 무슨 인연이 있었나. 그 새가 죽던 순간에 나를 간절히 생각하여서 그래 내가 오늘 여기를 왔나? (내 시체라도 보아주고 나를 묻어나 주오) 이렇게 그가 생각한 것이 내 마음에 통한 것인가. 숙명통이 없는 나는 그와 나와의 전생의 인연을 알 길은 없다. 그러나 혹은 부자나 부부나 친구나 무슨 심상치 아니한 인연이었던 것 만은 분명한 것 같다.<sup>11)</sup>

위의 첫 번째 글은 소의 여름나기를 지켜보던 ‘나’가 도달한 지점이다. 소는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잠시 쉬는 시간에도 늘 파리와 모기에게 뜯기고, 등에에 시달린다. 한가하게 쉴 수 있는 시간조차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 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인지한다. 소의 삶이 자신의 삶이자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숙명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글은 낯선 길의 두려움을 안고 가던 중에 ‘죽은

10) 이광수, 「여름의 유모어」, 『돌베개』, 위의 책, 291쪽.

11) 이광수, 「죽은 새」, 『돌베개』, 위의 책, 275쪽.

새’ 한 마리와 만나게 되면서 그 죽은 새를 자신이 묻어주면서 느낀 감상을 토로한 글이다. 이 새가 왜 내가 가는 길에 죽어 있는가, 이것은 과연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나’의 심리적 교감으로 이루어진 관조의 시선을 통해 드러난 세계관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조를 통한 사유의 세계는 현재의 이광수의 상황을 역으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민족을 위해 계몽을 하고 수양단체의 조직을 꾸려 민족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대의 운명처럼 신체제론에 협력해야만 했고, 오래도록 권력을 유지할 줄 알았던 일본 제국은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보다는 자신의 운명이자 숙명으로, 또 인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착한 것이다. 현재 숨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도 이러한 운명론과 인연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변화를 보일 즈음에 쓴 이광수의 글들은 관조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계몽하는 어조로 바뀌게 된다.

## 2. 사랑의 세계와 민족의 복원

이광수는 『돌베개』를 주로 봉선사와 사릉에서 집필하였다. 그러나 『돌베개』의 마지막에 신계 된 1948년 3월에 쓴 3편의 글은 서울에서 집필하게 된다. 사릉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그가 쓸 수 있는 글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세편인 「사랑의 길」, 「인생의 기쁨」, 「내 나라」는 『돌베개』에 실린 위의 글들과는 전혀 다른 서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서울에서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문단 상황이 이광수에게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948년이 되면서 문단은 자연스럽게 우익 계열

의 문인들이 중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해방 직후의 핵심담론이었던 ‘반일’이 서서히 와해되면서, 문단의 담론은 ‘반공’과 ‘민족’으로 재배치되는 상황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문단 상황이 이광수를 서울로 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 곳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 것이다.

이광수가 당시에 쓴 3편의 글은 한마디로 사랑과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정치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우는 주고 받는 것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중략-인용자) 우리나라는 수천년래로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건국의 목표로 삼아왔다. 이제 우리는 새 나라를 세우는 길에 있거니와, 우리 새 나라의 목표는 더구나 「사랑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을 그러한 나라를 지을 가장 적임자요, 또 인류가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어느 구석에서나 이러한 나라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중략-인용자)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위에, 이 반도 위에 이러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신시(神市)요, 이렇게 하는 것이 흥의인간이다. 자유도 그러하다. 남을 누르려는 자가 있으므로 자유라는 생각이 나는 것이다. 나를 섬기려 하는 자가 있을 때에 나는 너를 안 섬기란다 하고 버티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다. 「자유냐 죽음이냐」하는 것이 눌린 자의 부르짖음이다.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도 눌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략-인용자) 원체 사랑에는 자유와 부자유가 없다. 왜 그런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제가 저편의 종이 되는 것을 낙으로 알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저편의 섬김을 받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언제나 저편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이다. 내가 섬기기를 원하여서 섬기는 것은 자유보다도 더 기쁘고 더 귀한 것이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되거니와, 자유를 버리고 일부러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사랑의 경계다.<sup>12)</sup>

위의 인용문은 ‘사랑’과 ‘경우’를 비교하면서 법이 발달한 나라가 ‘경우’

---

12) 이광수, 「사랑의 길」,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72, 226~227쪽.

에 밝은 나라이지만, 경우보다 더 높은 가치는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한 후, 그 사랑의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으로 가는 길이 바로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길이라는 것이다. 홍익인간의 길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자유 역시 사랑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홍익인간의 이념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화두일 뿐만 아니라 ‘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이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떠한가. 단군의 삼백 육십사라는 현법을 일언이폐지 한 것이 ‘홍익인간’이니 곧 「인간을 널리 돋는다.」는 뜻이다. 개인의 생활 목적도 인간을 돋는데 있고 나라의 목적도 인간을 돋는데 있다. 돋되, 누구만을 돋는 것이 아니라 널리 돋는다는 것이니, 국민으로서는 알거나 모르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형제요, 자매로 알아서 널리 돋고, 인류로서는 하늘 아래 땅위에 사는 모든 종족들을 널리 돋는다는 것이어서 참으로 원융 무애한 민족이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은 단군이 나라를 세우신 이래로 세 부여, 세 나라를 통하여 건국의 이상으로 내려왔다.(중략-인용자)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의 외줄기 민족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고구려의 조의선인, 신라의 풍류교, 고려의 승려, 이씨 조선의 양반 이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결모양을 변하면서 흥망성쇠가 있었지마는 우리 민족이 사는 동안 이 모든 것을 훼뚫어 흐르는 ‘홍익인간’의 한 줄기 빛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 장차 오려는 새 시대의 출발도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sup>13)</sup>

위의 글은 홍익인간의 의미와 이상을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지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지금의 새 나라도 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논리는 당대의 우익 단체들의 건국이념, 교육이념과 동일한 기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교육이념이란 체제 수호와 보

---

13) 이광수, 「내 나라」, 위의 책, 233~236쪽.

존을 위한 일차적인 명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체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국가 장치의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삼는 인본주의 정신이다. 따라서 신본주ية나 유물사상 그리고 교조적 공식주의 등 그것을 저해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sup>14)</sup> 논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이광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홍익인간의 이념은 그가 꿈꾸는 ‘민족’의 본 모습이자 당대 우익계 문단의 정치적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결국 이광수의 ‘사랑’의 논리는 당대의 중심세력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안전한 것이었다. 이광수의 ‘사랑’의 논리에서 이루어진 홍익인간의 이념은 결국 반전체주의, 반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예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의 나라를 꿈꾸는 그의 논리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민족’의 복원이 놓여 있다. 그가 꿈꾸는 민족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여실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럴뿐더러 공산당의 근본정신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을 인정할 뿐이요, 민족을 통일체로 본 정치적, 문화적 단위성을 거부하여 무산자의 독재를 유일한 합리적인 정치 형태로 보고, 소련을 세계 공산주의자의 조국으로 규정하여 민족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국제 공산당 체제)하는 만큼 한 민족의 역사, 문화를 기초로 삼는 민족 국가는 혹 과도 시기의 한 방편으로 이용은 할지언정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이야 말로 공산주의자의 신조요, 임무인 것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좌익이 방편으로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움직일 수 없는 목표가 (一) 소유권을 폐지할 것, (二) 무산 계급의 이름으로 공산당 독재의 국가를 세울 것, (三) 소비에트 연맹, 즉 소련의 일 연방으로 가입할 것, 의 세 가지에 있음은 숨길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익 사람들(정말 공산주의를 알고 좌익에 참가하였다 하면)을 향하여 민족적인 자주 독립 국가를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니, 이는 예수교도에게 불교를 선전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므로

---

14) 강경화, 앞의 글, 80~81쪽 참조.

민족주의자와 소련계통의 공산주의자와 합작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는 몰라도 국가를 건설하는 정치적인 일이면 되지도 아니할 요술에 불과한 것이다.<sup>15)</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사랑’의 나라로 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공산주의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계급의 대립만 있을 뿐 자유가 없는, 소련계열의 공산주의는 민족을 말하는 독립 국가 건립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이는 당시의 우익이 득세하는 문단적, 정치적 분위기에 힘입어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경우’와 달리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자신의 논리와 모순되는 순간이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만은 하나로 화합될 수 없다는 배제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가 꿈꾼 ‘사랑’의 세계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으로 존재하는, 이론에서만 가능한 세계인 것이다. 즉 그의 ‘사랑’의 논리는 결국 자신의 이상인 ‘민족’의 복원을 위한 모순적인 하나의 전제된 논리였던 것이다.

이광수는 해방 직후에 ‘반일’이 시대 담론으로 중심이 된 시기에는 관조의 자세로 자연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찰의 계기로 삼았음에 반해, ‘반공’이 득세하는 상황의 도래와 동시에 자신을 향한 관조의 자세는 대중을 향한 계몽의 자세로 급전환하게 된다.<sup>16)</sup> 즉 1948년경의 정세가 그의 해

15) 이광수, 「내 나라」, 앞의 책, 240쪽.

16) 이광수는 『돌베개』의 「돌베개」부분에서 이런 말을 한다. “구약성경에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좋은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을 버리거나 잊은 사람이 아니요, 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는 불붙는 야심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 민족의 큰 조상이 되었다.” 이 부분이 이광수의 진정한 본마음이 아니었을까? 관조를 통한 은둔과 성찰의 시간은 자신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을 뿐 진정 이광수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1948년의 상황이 와도 그는 사통에서의 삶을 지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생을 뜯금없이 제시한 것은 민족의 지도자로 부활하고 싶은 내적 욕망

방기 문단의 위치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단 정세의 변환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입지를 완전히 구축하는 글쓰기에 돌입한다. 그것은 계몽의 글쓰기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고백’적 글쓰기인 것이다.

### III. 『나의 고백』의 서사 전략과 의미

해방기 문단의 재편성은 이광수 글쓰기의 방향 전환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본격적인 ‘자전적 글쓰기’인 『나의 고백』을 집필하게 된다. 이 ‘고백’의 서사 전략은 반민특위를 앞두고 있던 이광수의 문단적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나의 고백』은 자서전의 형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고백의 서사적 전략과 기억의 배치를 통해 당대의 이광수가 추구하고자 한 정치성의 매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기억의 배치와 ‘고백’의 전략

해방이 되었지만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던 이광수에게 1948년 8월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은 그에게 반민특위에 회부되는 처지를 만들기도 했지만, 반면에 우익 계열의 단독정부 치하에서는 그의 친일행위는 그다지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있었다. ‘친일’이라는 용어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해방 직후의 상황과 달리 1948년은 그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으며, 그의 봇에 날개를 달아

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준 의미 있는 해라 할 수 있다. 1948년 8월 단정수립과 동시에 그는 『나의 고백』을 집필한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출간을 하게 된다.

이광수의 『나의 고백』은 자서전의 일종인 고백서이다. 자서전의 작가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서술할 때 “자서전에 서술되어 있는 사건들이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고 논리적 연관성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건들은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구조화 되어 있다. 즉 자기에 대한 글쓰기의 행위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삶에 이야기의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줄거리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이다. 즉 경험의 총체로 제시되는 과거와,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이 현재의 욕망이 투사되어 나타날 미래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질서를 부과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행위이다.<sup>17)</sup> 결국 자전적 글쓰기는 현재와 미래의 나를 위한 기획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나의 고백』 역시 작가의 철저한 기획에 의해 구성된 자전적 글쓰기이다.

『나의 고백』은 「민족의식이 싹트던 때」, 「민족운동의 첫 실천」, 「망명한 사람들」, 「기미년과 나」, 「나의 훼절」, 「민족보존」, 「해방과 나」와 부록인 「친일파의 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민특위에 회부되기 직전에 쓴 글로 작가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기획된 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분량이다. 앞의 네 항목이 독립운동기인 민족주의자로 활동하던 시기의 이야기이고, 나머지 세 항목이 친일을 한 이후의 이야기이다. 민족 운동 시절의 글의 분량은 친일한 후의 글의 4배 수준으로 50쪽 정도의 긴 내용을 담고 있고, 친일 시절의 글의 분량은 14쪽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민족운동을 하던 시기가 길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고백서의 입장에서 볼 때, 분량

---

17) 유호식, 앞의 글, 181~210쪽 참조.

의 차이는 상당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나의 고백』은 분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일’한 사실을 고백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인 ‘독립운동기’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나를 투사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기획된 글쓰기이다. 물론 ‘친일’한 행위에 대한 내용도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친일’ 내용은 ‘독립’ 운동의 시기에 비해 훨씬 짧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는 작가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결점으로 고백된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을 인정해주는 계기로 작용할 뿐 그 죄를 더 부과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억의 의도된 배치에 의해 친일 행위는 독립 운동으로 가려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글쓰기 기획의 일환으로 적용된 ‘고백’의 서사 전략은 기억의 배치와 함께 자전적 글쓰기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드러낸다.

‘고백’하는 행위는 ‘가치’를 추구하는 의지와 결부되어 있다.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 중 특정 사건을 선택하여 배열함으로써 삶을 재구성할 때의 삶의 통일성이란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의 요소들을 미래로 투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백적 글쓰기는 하나의 기획이자 전략인 것이다. 즉 “고백의 전략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sup>18)</sup>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의 고백』은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글쓰기이다. 이광수 입장에서는 ‘친일 반역자’에서 ‘민족주의자’로의 정체성 회복의 과정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최근의 기억이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이광수의 『나의 고백』은 최근 기억보다는 오래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 속에 많이 배치시킨다. 즉 고백의 전략으로 쓰여진 글에서 ‘고백’은 기억나는 대로 함부로 쓴 글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방향,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고

---

18) 김한식, 「시간, 이야기, 그리고 존재의 시학」, 『현대 비평과 이론』 9호, 1995, 126~151쪽 참조.

타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의 고백』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고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족운동 시절의 이야기는 당연히 정체성 정립을 위한 고백들이다. 그러나 훼절한 시절의 내용에서도 고백의 서사 전략은 타인의 이해를 요구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재판에 검사는 그 논고의 대부분은 내 죄를 증명하기에 바쳤다. 그는 민족주의 계통의 범죄로 취급된 조선 청년의 칠 내지 팔 할이 피고의 저서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을 자백하였으니, 그렇게 많은 청년을 그르친 것만 하여도 이광수는 죽어도 아깝지 않다 하였고, 또 피고가 근래에 천황 중심을 말하고 내선 일체를 말하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운동의 한 방편에 불과하다. 이 시국에서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고는 민족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하고, 「피고는 죽어도 민족주의자를 버릴 자는 아니니, 재판소는 그에게 속아서는 아니 된다.」하였다. 그리고 내게는 오년, 다른 이에게 사년 이하, 이십에서와 비슷한 구형을 하였다. 재판장이 나더러 검사의 말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느냐 하기로, 나는 「검사의 말은 옳다. 내가 천황을 말하고 내선 일체를 말하는 것은 오직 조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만일 그리하는 것이 조선 민족에게 이익이 아니 된다면, 나는 곧 독립운동을 시작 할 것이다.」하였다. 그날 변호사는 왜 그런 위태한 말을 하느냐, 아슬아슬했다고 나를 책망하였다.<sup>19)</sup>

위의 인용문은 『나의 고백』에서 「나의 훼절」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선 이 글에서 화자인 ‘나’의 진술과 그때의 상황이 진실하게 고백되어졌느냐를 분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를 ‘고백’하는 서사에서 왜곡과 변형은 불가피한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기억하는 현재의 상황과 내

19)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 전집 7』, 삼중당, 1972, 275쪽.

적 욕구에 따라 수정된 채 재구성”<sup>20)</sup>되기 때문이다. 즉 위의 인용문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작가의 현재적 의도이다. 즉 이 글을 쓴 당시의 작가가 어떤 내적 욕구를 표명하고자 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위의 글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당시의 검사의 발언이다. “피고는 죽어도 민족주의자를 버릴 자는 아니니, 재판 소는 그에게 속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이다. 이 발언이 사실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 발언을 굳이 직접 대화의 방식으로 고백의 서사에 넣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발언은 필자가 직접 말한 부분도 아니며, 서술하는 과정에서 설명된 것도 아닌, 재판 과정에서 피고를 겸겨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검사가 말한 부분이다. 즉 이것은 필자의 친일행위가 민족 운동을 위한 가면이었고, 죽어서도 민족주의를 버리지 않을 인물임을 제3자가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사 전략인 것이다. 즉 친일 행위를 하고 있는 당시에도 그들(일본제국주의자)은 이광수를 민족 주의자로 인식했음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그 시절의 친일행위도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독자에게 각인시키는 방식인 것이다. 이 시기에 이광수가 일제의 신체제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동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다. 특히 황국신민이 되어 일제에 봉사한다면 조선인도 황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역설해 온 그였다. 그러나 그의 고백의 전략은 ‘배제된 기억’과 ‘선택된 기억’의 배치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를 민족주의자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으며, 본인은 이 고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나의 고백』이 놓여 있는 당시의 상황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반민특위로 이광수에게 발생할 위험은 극히 낮았다. 『나의 고백』에서의 ‘민족’의 기호는 이 당시의 ‘반공’의 기호와 동일하게 읽힐 수 있는 것이었

---

20)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216쪽.

다. 즉 ‘반일’의 담론에서 ‘반북’, ‘반공’의 담론으로의 전환은 그의 당대의 상황에 막강한 힘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즉 과거는 단순히 보존되거나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이해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었다. 즉 이광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당대의 담론은 그를 과거의 죄인의 명예에서 풀려나게 한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고백’의 서사 전략은 제3자가 그 내용을 변명의 구조로 읽든, 자기 합리화의 구조로 읽든 이광수에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정사실인 ‘친일’ 행위를 고백적 서사로 쓸 수 있었다는 당대적 상황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문단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새로운 민족 복원을 위해 다시 뜻을 들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계몽적 글쓰기로의 전환과 정치성

『나의 고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표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전적 글쓰기’이며, 고백의 서사 방식을 채택한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은 특이하게도 부록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친일파의 변」이다. 「친일파의 변」은 우선 제목에서부터 고백의 서사를 벗어나고 있다. 즉 ‘변(辯)’은 말 그대로 논설의 의미가 짙은 양식이다. 즉 논설은 타인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쳐 설득하는 글이다. 한마디로 ‘계몽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다분히 설교의 양식이다. 이광수는 갑자기 왜 고백의 서사에서 계몽의 서사로 글쓰기의 전략을 급선회한 것인가? 서사의 형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글을 쓰는 필자의 심리 상태나 상황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구원이 필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고백’의 양식을 빌린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자기 구원이나 정체성 회복이 필요 없을 때에는 자신을 향한 글쓰기보다는 타인을 향한 글쓰기 방식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고백서에 논설이 첨부되었다는 것은 결국 『나의 고백』을 쓸 무렵의 이광수는 굳

이 고백의 양식을 써서 자기 구원을 요청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말했듯이 “아직 글을 쓸 수 있는 동안에 민족운동과 나와의 대략을 적어서 평소에 나를 사랑하고 염려하여 주던, 또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에게 내 심경을 알리고자” 쓴 것이다. 즉 『나의 고백』을 쓴 시기는 문단적 상황에서 보더라도 ‘고백’의 전략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치적 분위기가 이광수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나의 고백』에서 자신의 ‘고백’적 글쓰기보다 오히려 「친일파의 변」이 더욱 대중을 향해 이광수가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내가 처음 친일파의 패를 차고 나섰을 때에는 나는 스스로 다른 친일파와는 다르다고 자처하여 속으로 그들을 멀시하였다. 그들은 일본인에 아첨하여 제 지위나 얻고 이익이나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과 오래 여러 번 만나는 동안에 나는 그들도 꼭 같은 조선민족이라고 깨달았다. 그들은 결코 일본인이 된 사람도 아니요, 조선인보다도 일본인을 위하는 이들도 아니었다. 도리어 민족의식에 있어서는 친일파 소리 아니 듣는 사람보다 강한 편이 많았으니, 그들은 날마다 일본인과 접촉하기 때문에 기습 아픈 차별대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기뻐하고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려는 정신에 있어서도 다른 동포보다 다름이 없다고 믿는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친일파의 변>을 이 책 끝에 붙였다.<sup>21)</sup>

“궁곤(窮困)이나 생명의 위험은 결코 변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못되는 것”<sup>22)</sup>이라고 청년들에게 당당히 외쳤던 이광수가 해방이 된 현재에는 『나의 고백』의 서문에서 ‘친일파’의 진정성을 변론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21) 이광수, 「나의 고백 서문」,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72, 540쪽.

22) 이광수, 「청년에게 아뢰노라」, 위의 책, 207쪽.

그가 논설조의 글을 쓰는 시기는 민족이나 대중에게 당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이다. 즉 민족주의자로 활동하던 1910년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와 ‘황민화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식민지 후반기는 그의 사상과 시대의 담론이 동일했을 때였다. 그 이외의 시기인 변절로 갈등하는 시기와 해방 직후의 시기에는 계몽조의 글을 쓸 수 없었고, 주로 사색과 관조를 통한 사소설적 경향의 글을 쓰거나 고백적 글쓰기를 집필해 왔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은 1948년 당대의 담론이 그를 지지하는 기반 위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도 역시 조선인이고, 오히려 친일파의 민족의식이 일반인보다 더 강하다는 모순된 논리로 친일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글을 쓰겠다고 선포하는 『나의 고백』의 서문이다. 이 서문은 친일파의 진정성을 고백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친일파를 대변하는 자로서 대중을 설득하고자 하는 글이다. 즉 반성과 성찰의 글쓰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친일파의 변」은 <홍제원 목욕>, <삼학사>, <관공리는 반민족자였던 가>, <미국인의 친일파관>, <대한민국과 친일파>의 5가지 글로 구성되어 있다.

사십년 일정 밑에 일본에 협력한 자, 아니한 자를 가리고, 협력한 자 중에서도 참으로 협력한자, 할 수 없어서 한 자를 가린다 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일정에 세금을 바치고, 호적을 하고, 법률에 복종하고 일장기를 달고, 황국신민 서사를 부르고, 신사에 참배하고, 국방헌금을 내고, 관공립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한 것이 모두 일본에의 협력이다. 왜 그런고 하면, 그가 협력을 아니 하였던들 죽었거나 옥에 갚겠기 때문이다. 만일 일정 사십년에 전혀 일본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해외에서 생장한 사람들일 것이니, 이들만 가지고 나라를 하여 갈 수가 있겠는가.<sup>23)</sup>

군중이 간음한 여인을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이자고 呼號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신 예수의 말씀도 한번 참작할 것이 아닐까 한다. 「남이 온전하기를 요구치 말고, 제가 부족한 것을 용서치 말라」고 하였다. 만일 삼학사가 오늘 제시다면 자기의 청결을 자랑하여 불쌍한 동족을 숙청하라고 주장하셨을까.<sup>24)</sup>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병자호란기에 청나라에 끌려간 유부녀나 처녀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홍제원에서 목욕하게 하여 그들의 정조에 대하여 월가월부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사례로 들어 친일파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즉 친일한 죄의 경증을 따져서 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 아래 살았던 조선인 모두가 엄밀한 기준으로 따진다면 친일행위를 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삼학사의 절개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죽어서 절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있는가라고 한 예수의 말을 인용하여 친일의 논리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의 방식은 대표적인 ‘설득’의 형식이다. 현재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의 예시를 가져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방법인 것이다. 설득의 논리에서 오류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대중에게 정당성을 호소하는 계몽조의 글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광수의 현재 상황의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일 행위를 고백하고 구원을 욕망하는 글쓰기, 즉 자전적 글쓰기인 『나의 고백』에서 느닷없이 계몽조와 설교조의 글쓰기 방식을 동원해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당대의 그의 정치적 입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광수의 이러한 입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3) 이광수, 「친일파의 변-홍제원 목욕」, 『이광수 전집 7』, 삼중당, 1972, 284쪽.

24) 이광수, 「친일파의 변-삼학사」, 위의 책, 285쪽.

사십년 조직적인 일본통치하에 있던 조선인으로서는 일본에 협력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망명하였거나 죽었다. 일본에 협력하는 것은 조선인의 생명의 대가였다하여 조선에 생존하는 조선인은 다 일본에 협력한 자여니와, 일본을 친한 자는 하나도 없더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글에는 해학적인 표현으로, 만일 일본에 협력한 자를 다 제외한다면 죽은 자와 일국의 망명객들로 신국가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끝으로 조선의 친일파 배제를 주장하는 자는 좌익과 안락의자 정치가라 하였다.<sup>25)</sup>

전국 중에 있는 대한민국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人和다. 힘은 和에서 오기 때문이다.(중략-인용자) 反民법의 대상이 되는 자의 數爻를 명지할 길은 없으나, 어림으로 보아서 萬으로 세일 것이요. 그 가족을 합산하면 本法에 영향을 미칠 자가 수십만에서 불하할 것이니 이는 수십만의 남한 주민이 전국 대업에 협력할 자격을 상실하고 반민족적 죄인의 낙인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新建國家이 실력을 減殺함이 저一, 二 정당의 不協力에 비할 것이 아닐 것이다.(중략-인용자) 그러므로 좌익에서 친일파 숙청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유산 유식계급 숙청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익을 주체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부로서 소위 친일파를 숙청한다는 것은 결국 자가 진영의 전투력을 제 손으로 깎는 결과가 될 것이니, 설사 그 숙청이 절대 불가피한 성질이라 하더라도 좌우, 남북 대립 중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심히 부득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sup>26)</sup>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해방기에 미군정이 남한 정부 수립에 개입하여 친일파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시한 내용들이다. 물론 이 문서가 사실일 가능성도 높지만, 그 많은 내용에서 이광수가 위의 내용을 강조하여 제시한 것은 자신의 목적, 즉 이 글을 쓴 의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친일이라는 논리 아래 친일파를

25) 이광수, 「친일파의 변-미국인의 친일파관」, 위의 책, 286쪽.

26) 이광수, 「친일파의 변-대한민국과 <친일파>」, 위의 책, 286~287쪽.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오직 좌익과 안락의자 정치가라는 표현을 이광수가 강조함으로써 해방기 그의 정치적 입지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人和’를 통한 화합만이 신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면서 화합의 대상은 친일유무와 상관없는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일파 숙청 논리는 좌익의 주장이며,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 상황에서 좌익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의 손해를 가져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번째 글 역시 그의 해방기 문단의 정치성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강력한 정치성이 그로 하여금 계몽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요컨대 이광수의 해방기 글쓰기는 관조의 서사 전략에서 시작하여 고백의 서사 전략으로, 마지막으로 계몽의 글쓰기로 마무리 된다.<sup>27)</sup> 이러한 서사 전략의 변화는 이광수의 정치성과 맞물리면서 변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시절, 은둔의 시절의 글쓰기는 ‘관조’의 전략을 취했으며, 세상에서 버려진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할 때는 ‘고백’의 전략을 취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상과 시대의 정치적 담론이 동일할 때에는 ‘계몽’의 전략을 통해 글쓰기를 구사하였다. 해방기의 정치 담론의 혼란스러움만큼 이광수의 서사 전략의 변화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즉 그의 해방기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는 문단의 정치적 상황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서사 전략의 의미도 도출되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해방 직후의 이광수의 자전적 글쓰기와 단정수립 후 자전적 글쓰기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문학이 관조의 서사 전략이든 고백의 전략이든 그것은 계몽적 글쓰기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 『나의 고백』 이후의 글로 대표적인 작품은 『사랑의 동명왕』, 『서울』 등이 있다. 이 글들은 소설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이광수 특유의 계몽조와 정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 IV. 결론

해방기의 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는 관조와 고백의 서사적 전략에서 문단의 정치적 담론의 변화와 함께 계몽의 서사 전략으로 글쓰기의 양식이 전환되었다. 해방기의 ‘자전적 글쓰기’인 『돌베개』와 『나의 고백』은 해방기 문단에서의 이광수의 내적 욕망과 정치성의 매커니즘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서사 전략의 변화가 문단의 정치 담론과 맞물리면서 이광수의 해방기 문단의 다양한 장르에 대한 해석을 일관된 논리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베개』는 관조의 방식으로 삶을 돌아보는 서사 전략을 구사한 부분과 계몽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는 서사 전략으로 구사된 부분이 함께 엮여 있는 작품이다. 이 서사 전략의 차이는 문단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1948년을 기점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관조의 시선은 ‘나’의 내면을 향해 있어서 자신을 성찰하는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즉 사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서사는 ‘나’와 ‘자연’과의 합일의 경지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수긍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이것은 결국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이르게 된다.

『돌베개』에서 계몽의 서사 전략을 보이는 세 편의 글은 문단의 정치적 담론이 ‘반일’에서 ‘반공’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쓴 작품들이다. 이 글에서는 ‘사랑’의 세계를 노래하면서 결국 민족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여 계몽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그는 사랑의 세계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당대 우익계열의 정치적 기반 위에 성립된 것이다. 즉 그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인 사랑’의 논리는 ‘공산주의’가 배제된 민족의 복원으로 그려지면서 자신의 논리 안에서 모순을 보인다.

『나의 고백』은 단정 수립과 동시에 집필한 자전적 글쓰기이다. 자전적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기억의 배치에 따른 고백의 서사 전략으로 쓴 글이다. 이 글 역시 ‘고백’의 전략으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시절의 기억을 집중적으로 배치시키고 있다. 가치를 추구하는 의지와 결부된 ‘고백’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한 타인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이러한 글쓰기를 통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고백서’임을 표명하고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계몽의 의도로 쓴 논설이 첨부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친일파의 변>인데, 이 글은 부록이라고 칭함에도 불구하고 ‘설득’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친일에 대한 사상을 대중을 향해 계몽하고 있다. 결국 문단의 정치적 기반 위에서 쓴 『나의 고백』은 자기 구원의 글이 아니라 대중을 향해 계몽하고 설득하는 글로써 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고백적 글쓰기에서 계몽적 글쓰기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1948년 당시 문단의 정치 담론과 이광수의 사상이 동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이광수의 해방기 ‘자전적 글쓰기’는 관조의 서사에서, 고백의 서사로, 그리고 계몽의 서사로 귀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사 전략의 변화는 당대 이광수의 정치적 입지와 상호관련성을 맺으면서 이루어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해방기의 정치 담론의 혼란스러움만큼 이광수 글쓰기의 서사 전략도 다양하게 변모되었다. 즉 이광수의 해방기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의 서사 전략의 전환은 결국 그의 문단의 정치적 위치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광수가 문학을 시작할 때인 1910년대부터 해방기 문단에 이르기까지 그의 글쓰기 양상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심은 계몽적 글쓰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광수, 『이광수 전집』 7,8,10, 삼중당, 1972.

### 2. 단행본

김경미, 『이광수 문학과 민족 담론』, 역락, 2011.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 1999.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3. 논문

강경화, 「해방기 우익 문단의 형성과정과 정치체제 관련성」, 『한국언어문화』 제2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6. 75~98쪽.

강현국, 「기억의 연금술」, 『한국학연구』 제33집, 고려대 한국학 연구소, 2010. 6, 209~233쪽.

김한식, 「시간, 이야기, 그리고 존재의 시학」, 『현대 비평과 이론』 9호, 1995, 126~151쪽.

노상래, 「이광수의 자서전적 글쓰기에 대한 일고찰」, 『동아인문학』 제16집, 동아인문학회, 2009.12, 119~151쪽.

류경동, 「해방기 문단형성과 반공주의 작동 양상 연구」, 『상허학회』 제21집, 상허학회, 2007. 10, 11~35쪽.

엄경희, 「근대성과 자연합일의 시」,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2, 103~131쪽.

유호식, 「자기애 대한 글쓰기 연구(1)-고백의 전략」, 『불어불문학연구』 제43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0, 181~210쪽.

**Abstract**

The Strategy of 'The Autobiographical Writing' of the Liberation  
Lee Guang-su Literature and Meaning

-focused on <Dolbaegae>(돌배개) and <My confession>(나의 고백)

Kim, Kyung-mi

This paper is the purpose to look into the internal desire of the writer whom it shows up in 'the autobiographical writing' of the liberation Lee Guang-su literature. It secures its own location in the liberation literacy circle with the strategic arrangement of 'contemplation' and 'confession' narration. This narration strategy exposes the political nature through the layout structure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literacy circle and memory.

<Dolbaegae> is the work drawing the world of the introspection looking internally at its own life as the narration of 'contemplation'. The eye line of the stork accepts all thingses occurring in its own life as the destiny and fate. And while the discussion of the literacy circle is changed to 'anticommunism', its own political is shown under the name that it is 'love'. It is the world of this love found by Lee Guang-su as the restoration of 'race' doing the political with the security.

<My confession> is the letter consisting of the narration of 'confession' with the autobiography writing. It is the work exposing his current desire by the intended organization of the memory. The structure, where <the side area of the pro-Japanese group> attached to the end of this work enlightens the public it exceeds the strategy for recovering the self-identity furthermore. The liberation literacy circle, it returns to the writer recovering its own political. The liberation this works can grasp the internal desire of the day of Lee Guang-su and political.

Key-words : Lee Guang-su, the autobiographical writing, narration strategy,  
contemplation, confession, memory, enlightenment ,  
<Dolbaegae>, <My confession>

김경미

소속: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09-5번지

전화번호: 010-8598-7928

이메일: undertheneck@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